

---

▣▣▣ 특집논문 ▣▣▣

세계기록유산과 남원

---

세계기록유산으로 본 남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전개과정  
- 『순교약력』과 『남원종리원사』를 중심으로 -  
김양식

김동규 기증 유물로 본 남원지역 천도교  
성주현

---



## 세계기록유산으로 본 남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과 전개과정\*

- 『순교약력』과 『남원종리원사』를 중심으로 -

김양식\*\*

### 〈목 차〉

머리말

I. 남원 세계기록유산 『순교약력』과 『남원종리원사』의 기록물 검토

II. 세계기록유산으로 본 남원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

맺음말

### 〈국문초록〉

본 논문은 2023년에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185건 가운데 남원지역과 관련된 『순교약력』과 『남원종리원사』이 생산된 배경과 그 내용을 살펴본 뒤, 두 기록물 내용을 중심으로 남원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전개과정을

\* 이 논문은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가 주최하고 남원문화원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주관한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남원학술대회(2024. 10. 23)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소장

살펴보았다.

『순교약력』은 남원 동학인 총 91명에 대한 성명 및 약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기록물이다. 특히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1894년에 사망한 이들에 관한 기록이다. 동학농민혁명기에 사망한 42명 가운데 둔덕면과 산동면 출신이 각각 7명과 11명으로, 이 두 지역이 남원지역의 동학 확산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의 중심지였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연령층은 30~40대가 가장 많으며, 사망 시기는 거의 모두 정부군과 일본군이 남원을 떠난 12월 5일 이후에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이는 2차 동학농민혁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문제의식이 요구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남원종리원사』 부록으로 있는 「남원군 동학사」는 1924년 10월 22일 동학농민혁명기 동학 지도자였던 원로 유태홍의 구술을 남원군 주임 종리사 최병현이 기술한 것으로, 1861년에 수운 최제우가 남원에 온 사실부터 1904년 일진회사건까지 44년의 남원지역 동학 역사를 정리하고 있지만, 전체 분량의 60% 정도가 갑오년 남원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그 이유는 동학농민혁명을 중심으로 남원 천도교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정립하고자 한 것이다.

그를 위해 「남원군 동학사」는 1861년에 수운 최제우가 남원에 두 차례 방문한 점, 1892년 삼례 동학집회, 1893년 1월 광화문 복합상소, 1893년 3월 금구 원평 및 보은집회에 적극 참여한 사실 등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전주화약 이후 집강소가 설치되면서 남원에 김개남이 5영을 설치한 사실, 11월 14일 방아치전투, 11월 28일 남원성 퇴각 등에 관한 새로운 사실 등을 담고 있다.

다만, 「남원군 동학사」는 남원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사실은 소략하게 기술되어 있고 착종되거나 내용상의 오류가 일부 있어 사료 내적 비판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군 동학사」는 동학농민군 입장에서 기록되어 있어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남원 출신 동학농민군들이 어떻게 죽어갔고, 설령 생존하였어도 얼마나 힘든 삶을 이어갔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 남원 동학농민혁명, 순교약력, 남원종리원사, 방아치전투, 유태홍

## 머리말

2023년에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185건에는 남원군 종리원에서 생산한 『순교약력(殉敎略歷)』과 『남원종리원사(南原宗理院史)』가 있다. 이들 자료는 남원 대접주 김홍기(金洪基, 1856-1895)의 4대손인 김동규(金東圭)가 소장하고 있던 기록물을 1995년에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김홍기는 1856년 10월 9일 남원부 둔덕방 탐동리(현 임실군 오수면 신기리)에서 태어났다.

이 두 자료는 남원지역에 동학이 확산되는 일련의 과정과 남원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수세력에 의해 체포·처형당한 동학농민군의 이력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특히 이들 자료는 남원 동학농민혁명에 직접 참여한 유태홍(柳泰洪)의 진술을 남원군 종리사 최병현(崔炳鉉)이 각각 1923년과 1924년에 정리한 것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기억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때문에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할 때 중요 기록물로 선정한 것이다.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두 기록물의 서지사항은 <표 1>과 같다.

『순교약력』과 『남원종리원사』는 1995년에 공개된 이후 『영상일기(嶺上日記)』·『갑오약력(甲午略歷)』·『박봉양경력서(朴鳳陽經歷書)』 등과 함께 남원지역 동학, 동학농민혁명, 천도교 연구에 활용되어 남원지역의 동학농민혁명사 연구를 풍부하게 하였다. 그렇지만 기록유산 차원에서 이들 기록물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기록물이 어떠한 시대적 배경하에서 생산되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기록물의 성격과 가치를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를 통해 남원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전개과정을 새롭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세계기록유산 『순교약력』과 『남원종리원사』 서지사항

| 기록명            |                | 저자  | 연도   | 분량        | 재질 | 크기          | 형태 | 내용                                                                             |
|----------------|----------------|-----|------|-----------|----|-------------|----|--------------------------------------------------------------------------------|
| 순교<br>약력       | 殉敎<br>略歷       | 최병현 | 1923 | 1책<br>61면 | 한지 | 16×24       | 도서 | 동학농민혁명에 직접 참여한 유태홍의 진술을 남원군 종리사 최병현이 1923년 정리한 자료로, 남원 동학농민군의 활동 현황을 알 수 있음    |
| 남원<br>종리<br>원사 | 南原<br>宗理<br>院史 | 최병현 | 1924 | 1책<br>47면 | 한지 | 17×<br>24.5 | 도서 | 동학농민혁명에 직접 참여한 유태홍의 진술을 1924년 남원군 주임 종리사 최병현이 기술하여 정리한 자료로, 남원 동학농민혁명사를 알 수 있음 |

## I. 남원 세계기록유산 『순교약력』과 『남원종리원사』의 기록물 검토

### 1. 『순교약력』의 생산과 내용

『순교약력』은 표제목이 ‘포덕 64년 3월 일 순교약력’으로 되어 있고 표지 포함 총 56면으로 되어 있는 필사본이다. 1923년 3월에 간행되었다. 목차는 1923년 3월 9일 남원군 종리원 주임 종리사(宗理師) 최병현이 작성한 위령문(慰靈文)을 실은 뒤, 1923년 3월 1일 작성된 ‘남원군교구 순교인 성명’ 명단 42명과 ‘근성교무 중 환원인 성명’ 명단 49명을 게재한 뒤 총 91명에 대한 성명 및 약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

다.<sup>1)</sup> 눈에 띄는 점은 문서 생산시기가 다른 점이다. 명단 작성은 1923년 3월 1일, 위령문 작성은 1923년 3월 9일로, 생산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록물이 생산된 직접적인 계기는 1923년 3월 10일 있었던 천도교 남원교구의 ‘갑오 이래 순교인의 위령식’이었다. 남원교구는 당일 ‘제1세 교조 환원 기도식’을 가진 뒤 위령식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남원교구 종무사 이강전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감상담을 이야기하고, 『순교약력』을 작성한 남원교구 서무원 최병현은 순교인의 약력을 낭독하였다.<sup>2)</sup> 따라서 『순교약력』에 수록된 문건들은 3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던 순교인 위령식을 위해 3월 1일 42명의 순교인과 47명의 환원인 명단을 작성하고 8일 뒤인 3월 9일에 위령문을 각각 차례로 작성한 것이다.

순교인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사망한 인물들이고, ‘근성교무 중 환원인’은 동학농민혁명 이후 남원지역 동학 및 천도교 활동을 열심히 하다 1923년 1월 이전에 사망한 인물들에 대한 약력이다. 이는 단순히 1923년 이전 남원지역 동학 및 천도교 인물에 대한 기록정보를 넘어서, 동학농민혁명 이래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노력을 통해 발전해 온 천도교 남원교구의 뿌리와 정통성을 확인한 것이다.

특히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갑오년에 사망한 이들에 관한 기록이다. 여기에는 김홍기, 박중래(朴仲來), 황내문(黃乃文) 등 남원지역 유명접주들의 출생, 거주지, 동학 입교시기, 연원, 지위, 활동내용, 체포과정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표 2>와 같다.

---

1) 『순교약력』에서 정리된 명단은 순교인 42명과 환원인 45명 총 87명이나, 실제 약력이 작성된 명단은 순교인 42명과 환원인 49명 총 91명이 정리되어 있다.

2) 『동아일보』, 1923년 3월 19일, 남원 천도교구의 기도식.

〈표 2〉 동학농민혁명기 남원지역 순교자 현황

| 성명  | 출생          |      | 연원          | 동학<br>입도 | 직위       | 체포                 | 사망                                     |
|-----|-------------|------|-------------|----------|----------|--------------------|----------------------------------------|
|     | 지역          | 연도   |             |          |          |                    |                                        |
| 김홍기 | 둔덕면<br>탑동리  | 1856 | 최찬국<br>(장인) | 1888     | 대접주      | 겨울 민포에게<br>체포      | 1895.2.14.<br>남원장터 포형                  |
| 최진악 | 지사면<br>안하리  | 1846 | 김재홍         |          | 접주       | 12.12. 민포에게<br>체포  | 오수장터 포형                                |
| 김낙기 | 둔덕면<br>탑동리  | 1853 | 김홍기         | 1890     | 접주       |                    | 1895.2. 동생<br>죽음에 화병, 병사               |
| 강윤희 | 임실군<br>신평면  | 1842 | 김홍기         | 1890     |          | 진산에서<br>민포에게 체포    | 포살                                     |
| 김영기 | 둔덕면<br>탑동리  | 1845 | 김홍기         | 1891     | 접주       | 12월<br>이덕흠에게 체포    | 1895.2.28.옥중<br>장독사                    |
| 임익삼 |             |      |             | 1891     |          | 12.12. 민포에게<br>체포  | 오수장터 포살                                |
| 이창우 | 둔덕면<br>우번리  | 1859 | 김홍기         | 1891     |          | 겨울 체포              | 독형을 당한 뒤<br>계속 지목을 받아<br>1895.5.16. 자결 |
| 김종문 | 둔덕면<br>탑동리  | 1880 | 김홍기         | 1893     |          |                    | 아버지 포형에<br>화병, 병사                      |
| 이기면 | 둔덕면<br>신기리  | 1853 | 김홍기         | 1890     | 접주       | 겨울 체포              | 엄형 뒤 장독으로<br>1896.3.23. 병사             |
| 김해중 | 덕고면<br>후리   | 1851 | 김홍기         | 1890     |          | 겨울 민포에게<br>체포      | 12.12. 오수장터<br>포형                      |
| 김연호 | 덕고면<br>후리   | 1857 | 김홍기         | 1890     | 접주       | 겨울 장수<br>이광언에게 체포  | 장수읍 장터에서<br>포형                         |
| 심노환 | 장흥면<br>조산리  | 1855 | 이규순         | 1892     | 접주       | 12.15. 민포에게<br>체포  | 남원장터 포형                                |
| 전태옥 | 지사면<br>기산리  | 1860 | 강윤희         | 1889     | 접주       | 12월 민포<br>박진무에게 체포 | 12.14. 남원장터<br>포형                      |
| 변흥두 | 덕고면<br>배산리  | 1858 | 김낙기         | 1893     | 접주       | 겨울 민포에게<br>체포      | 오수장터 포형                                |
| 이규순 | 서봉면<br>화산리  | 1868 |             | 1892     | 수접주      | 겨울 민포에게<br>체포      | 1895.2. 남원장터<br>포형                     |
| 정동훈 | 견소곡면<br>옥전리 | 1861 | 김홍기         | 1890     | 접주<br>집강 | 12월 민포<br>서순지에게 체포 | 남원장터 포형                                |

| 성명  | 출생          |      | 연원  | 동학<br>입도 | 직위       | 체포                    | 사망                                              |
|-----|-------------|------|-----|----------|----------|-----------------------|-------------------------------------------------|
|     | 지역          | 연도   |     |          |          |                       |                                                 |
| 김현숙 | 변암면<br>북치리  | 1856 |     |          | 접주       | 겨울 민포에게<br>체포         | 변암장터 처형                                         |
| 하치구 | 두동면<br>장포리  | 1861 |     | 1890     |          |                       | 중형 뒤 계속<br>핍박, 근심을<br>이기지 못하고<br>약을 먹고 자결       |
| 유시도 | 백파면<br>과리   | 1872 | 유태홍 | 1891     |          |                       | 1895.3. 민포에게<br>매맞은여독으로<br>고생하다<br>1900.6.7. 사망 |
| 박중래 | 산동면<br>부절리  | 1860 |     | 1892     | 집강<br>접사 | 1895.1. 운봉<br>민포에게 체포 | 운봉 장터에서<br>포형                                   |
| 박경협 | 산동면<br>부절리  | 1862 |     | 1893     |          | 민포 박문달에게<br>체포        | 12.16. 운봉<br>관암리에서 포형                           |
| 김춘영 | 산동면<br>부절리  | 1859 |     |          |          | 민포 박문달<br>부하에 체포      | 변암면 원촌장터<br>포형                                  |
| 최도준 | 산동면<br>부절리  | 1861 |     | 1893     |          | 민포에게 체포               | 12.9. 원촌장터<br>포형                                |
| 최경현 | 산동면<br>부절리  | 1848 |     | 1893     |          | 민포에게 체포               | 12.10. 원촌장터<br>포형                               |
| 이병우 | 산동면<br>부절리  | 1833 |     | 1891     | 교장       |                       | 동학 두려움으로<br>병이 생겨<br>1903.6.28. 사망              |
| 김부철 | 산동면<br>부절리  | 1865 |     |          |          | 운봉 민포에게<br>체포         | 남원읍에서 참형                                        |
| 소화숙 | 상원천면<br>회동리 | 1856 |     | 1893     | 접주<br>교장 | 운봉 민포에게<br>체포         | 12월 운봉장터<br>참형                                  |
| 안재언 | 산동면<br>대치리  | 1868 |     |          |          | 민포에게 체포               | 남원장터 포형                                         |
| 이동기 | 산동면<br>대리   | 1874 |     | 1893     |          |                       | 12.17.<br>관암치에서<br>민포에게 포형                      |
| 양주칠 | 산동면<br>대기리  | 1856 |     | 1894     | 도성찰      |                       | 12.20. 남원장터<br>민포에게 포형                          |

| 성명  | 출생          |      | 연원        | 동학<br>입도 | 직위  | 체포                          | 사망                         |
|-----|-------------|------|-----------|----------|-----|-----------------------------|----------------------------|
|     | 지역          | 연도   |           |          |     |                             |                            |
| 최성좌 | 지사면<br>주암리  | 1865 |           | 1894     |     | 민포 이성흥에게<br>체포              | 12.10. 포형                  |
| 황내문 | 서면<br>매암리   |      |           | 1891     | 대접주 | 12.9. 민포에게<br>체포            | 12.10. 포형                  |
| 오한복 | 말천면<br>목지리  |      |           | 1893     |     | 민포에게 체포                     | 12.10. 포형                  |
| 권이갑 | 둔덕면<br>관월리  |      | 이기동       |          | 포사  |                             | 11.14.<br>고남산에서<br>민포에게 포형 |
| 이사명 | 진안군<br>백운면  |      |           | 1892     | 접주  | 겨울 민포에게<br>체포               | 12.9. 오수장터<br>포형           |
| 정규봉 | 오지면<br>화촌리  |      |           |          |     | 민포에게 체포                     | 12월 평당리에서<br>포형            |
| 정극중 | 전소곡면<br>옥전리 |      | 김흥기       |          | 접주  | 민포에게 체포                     | 12월<br>남원장터에서<br>포형        |
| 장남두 | 산동면<br>이동리  |      | 김흥기       | 1894     | 도성찰 | 겨울 민포에게<br>체포               | 12월<br>남원장터에서<br>포형        |
| 양주신 | 구례군<br>광의면  |      | 하동<br>임정연 | 1893     |     | 접주 혐의로<br>경군대장에게<br>구례에서 체포 | 12.12. 참형                  |
| 이치년 | 구례군<br>광의면  |      | 하동<br>임정연 | 1890     |     | 무고로 경군에게<br>체포              | 12.13. 구례 남문<br>밖 포형       |
| 표명무 |             |      | 유태홍       | 1894     |     | 12월 민포에게<br>체포              | 남원장터에서<br>포형               |
| 이응삼 | 갈치면<br>식정리  |      |           |          | 수접주 | 민포에게 체포                     | 12월<br>남원장터에서<br>포형        |

\*자료: 『순교약력』.

〈표 2〉에서 사망자(이하 순교자) 42명의 지역별 분포는 구례와 임실에서 출생한 4명을 제외한 나머지 38명의 출생지는 모두 남원지역으로, 그 가운데 둔덕면과 산동면 출신이 각각 7명과 11명이다. 이것으로

보아 남원지역의 동학 확산과 동학농민혁명 참여는 둔덕면과 산동면 주민이 주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둔덕면은 김홍기가 친인척을 적극 동학에 가입시켜 활동한 결과 김홍기가 살던 탑동리 출신이 둔덕면 7명 가운데 4명이나 된다. 장인 최찬국으로부터 1888년에 동학을 전수받은 김홍기는 그 이후 동생, 아들, 사촌, 조카 등에게 동학을 전수한 대접주였다. 갑오년 이전에 김홍기로부터 도를 받아 동학 활동을 한 인물은 『순교약력』에 기록된 91명 가운데 17명이나 될 정도로, 김홍기를 연원으로 한 동학의 인적 네트워크가 남원지역 동학의 중심 조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순교약력』에 기록된 91명 가운데 김홍기가 살던 둔덕면 출신이 20명이나 되고 그 가운데 7명이 탑동리 출신이다.

반면에 산동면은 11명 가운데 부절리 출신이 7명이나 될 정도로 부절리가 중심지였으나, 동학농민혁명 이후 지극 정성으로 활동한 동학도인은 1명 밖에 없었다. 이것으로 보아 둔덕면은 강한 친족기반을 배경으로 갑오년 이후에도 동학의 명맥을 이어간 반면, 산동면은 동학농민혁명기에 참화를 입은 다음 동학의 명맥이 사실상 단절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순교자들의 나이는 1830년대생이 1명, 1840년대생이 4명, 1850년대생이 12명, 1860년대생이 10명, 1870년대생이 2명, 1880년대생이 1명이었다. 이것으로 보아 순교자들은 대부분 30-40대의 젊은 나이였다. 이들은 1890-1893년에 집중적으로 동학에 입도하였다. 김홍기가 1888년에 동학을 장인으로부터 전수받은 이후 1890년부터 적극적으로 동학을 확산시켰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김홍기를 연원으로 한 순교자가 42명 가운데 11명이나 되었다(미상자 제외).

이들 순교자가 동학농민혁명기에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다. 주로 체포와 사망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어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거의 모두 1894년 12월경 민포, 즉, 민보군에게 체포되었다.

남원지역은 1894년 8월 25일 남원 동학농민군대회 이후 동학농민군이 완전 장악한 해방구였으나, 상황이 역전되는 것은 11월 14일 이후부터이다. 남원 토착 대접주이자 최대 동학조직을 거느린 김흥기, 담양의 남응삼, 남원의 관노 김원석, 임실 접주 최승우 등이 이끄는 남원 동학농민군 수천명은 운봉을 점령하기 위해 11월 13일 산동면 부동마을 방향으로 이동하여 주둔하였다(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이에 맞서 박봉양이 이끄는 운봉 민보군은 11월 14일 새벽 2시경 2천명의 병력을 방아치 일대에 배치하였다. 드디어 11월 14일 4시경부터 다음날 8시경까지 벌어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결과, 동학농민군은 큰 타격을 입고 남원성으로 되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11월 14일 전투지가 방아치인지 관음치인지는 기록물마다 상이하다. 남원 유생 김재홍이 기록한 『영상일기』와 전투의 당사자인 박봉양이 작성한 『박봉양경력서』에는 관음치로 되어 있고, 구례에 살던 매천 황현이 기록한 『오하기문』에는 방아치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기록물마다 전투지가 다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방아치와 관음치가 고남산과 방학산성 사이에 있는 고갯길로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혼동한 것이거나, 아니면 전투가 관음치와 방아치에 걸쳐 광범위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표현상의 차이로 보인다. 그 단적인 증거로 『순교약력』에 의하면, 11월 14일 당일 권이갑이 고남산에서 박봉양군에게 총맞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실제 전투는 넓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전개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차후 현장 조사와 함께 정밀한 문헌 고증이 요구된다.

이렇게 1박2일에 걸친 방아치전투에서 패한 동학농민군이 후퇴해 남원성으로 되돌아오자, 박봉양은 민보군을 이끌고 11월 28일 주천면 솔치를 넘어 남원성을 포위한 뒤 남문과 서문에 불을 지른 뒤 동문으로 진입하였다. 성을 지키던 화산당 접주 이문경과 오수 접주 김흥기, 임실 접주 최승우 등은 성문이 불타고 민보군이 밀려들자 북문(남원시 동충동 197-66, 구 남원역 광장)으로 퇴각하여 흩어지었다. 이 과정에서 동

학농민군 30여 명이 죽고 100여 명이 사로잡혔다.<sup>3)</sup>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11월 28일 박봉양이 지휘하는 민보군의 남원성 점령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비류(匪類)가 일제히 성에 들어올 때에 운봉(雲峯)의 의병장인 주서 박문달(朴文達)이 의병 500~600명을 인솔하여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우선 동문·서문·남문에 불을 질러 적으로 하여금 나가지 못하게 하고, 북문만을 열어 적이 도망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문 밖에 수 백보 되는 산의 양쪽 요충지에 총을 가진 군사를 매복시켰습니다. 성을 에워싸고 함성을 지르며 성안을 향해 포(砲)를 쏘니, 적이 흩어져서 ‘북문으로’ 도망쳤습니다. 북문 밖에 매복한 병사들이 ‘북문으로 빠져나오는’ 적을 향해 총을 난사하여, 쏘아 죽인 자가 50~60명이었고 사로잡아 죽인 자가 10여명이었습니다.(『양호우선봉일기』, 갑오 12월 3일자).

이렇게 11월 28일 전세가 역전되자, 박봉양이 이끄는 남원 민보군은 동학농민군을 찾아내 함부로 죽이고 약탈을 일삼았다. 남원 유생 김택주·오주영 등은 남원성이 함락되자 민보군 수백명을 이끌고 남원성에 들어와 동학농민군 수색에 앞장을 섰다.

이런 상황에서 12월 3일 이두황이 이끄는 장위영군이 미나미쇼시로가 이끄는 일본군과 함께 남원성에 도착하였다. 이두황부대는 남원에 2일 머문 뒤 12월 5일 미나미의 지시에 따라 남원을 떠나갔다. 이 과정에서 박봉양의 만행이 이두황과 미나미에게 보고되어, 박봉양은 12월 5일 일본군 총대장 미나미의 편지를 받고 12월 7일 나주로 향하여 12월 11일 나주 감옥에 투옥되었다.

이렇게 박봉양이 이끄는 민보군을 비롯해 일본군과 정부군이 남원을 떠나가자, 남원의 통제권은 사실상 남원 민보군에게 넘어갔다. 11월 28일

---

3) 「朴鳳陽經歷書」, 『동학란기록』 하.

이후 전세가 역전되자, 숨 죽이고 있던 남원지역 보수유생층은 민보군을 조직해 동학농민군 토벌에 앞장을 섰다. 이들은 12월 3일 일본군과 정부군이 남원성에 진주한 이후 더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들이 조직한 남원 민보군은 이색의가 수성토통찰, 황영이 중통령, 김태주가 통령, 양한규가 수성중군 등을 맡아 흩어진 동학농민군을 수색 체포하여 처형하는데 앞장을 섰다.<sup>4)</sup>

남원 민보군은 동학도들을 찾아내 감옥에 가두고 온갖 악형을 자행하고 끝내 총을 쏘아 죽였다. 그래서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42명 대다수는 정부군과 일본군이 남원을 떠난 12월 5일 이후에 체포되어 남원장터, 오수장터, 운봉장터 등지에서 처형되었다. 더욱이 1895년 2월에도 처형된 인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남원 민보군의 활동은 겨울 내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갑오년 겨울 남원장터 등지에서 처형되지 않았을지라도, 일부는 감옥에서 장독으로 죽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체포된 동학농민군은 감옥에서 모진 고문에 시달렸음을 알 수 있다. 다행히 일부는 출옥하였지만, 이후에도 동학 지목이 심해 병사하거나 자결한 예도 있었다.

이창우는 독형을 당한 뒤 지속적으로 핍박을 받아 1895년 5월에 자결하였고, 이기면은 출옥 뒤 장독으로 고생하다 1896년 3월에 병사하였다. 유태홍의 친동생 유시도는 1895년 3월 뒤늦게 민보군에게 매를 맞아 여독으로 1900년 6월에 사망하였다. 산동면 부절리에 살던 이병우는 동학 두려움으로 병이 생겨 1903년 6월에 사망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남원지역 토착 동학도들은 동학농민혁명 이후 다행히 살아 남았어도 계속 된 핍박과 혐의를 받아 고통의 나날을 보내다 세상을 등지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살아 남은 동학도들도 서로 피해 다닐 정도로 역적의 무리로 몰려 숨어지내야만 하였다.<sup>5)</sup>

---

4) 『남원지』, 1960, 323쪽. 박찬승, 1995, 「1894년 농민전쟁기 호남지방 농민군의 동향」,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 새길, 77쪽.

다만, 특이한 사례는 구례 광의면 출신인 양주신과 이치년의 사례이다. 이들은 하동의 임정연으로부터 동학을 전수받았는데, 경군(京軍)에게 체포되어 죽음을 맞이하였다. 경군은 바로 이두황이 이끄는 장위영군이다. 이두황부대는 12월 3일, 12월 5일 미나미의 지시에 따라 12월 5일 남원성을 출발해 순창·곡성을 거쳐 12월 9일 구례에 도착하였다.

이날 밤 구례에서 민보군을 조직한 이기는 잡아서 가둔 접주 임정연과 접사 양주신을 이두황에게 데리고 갔다. 자기 전공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이두황은 동학농민군 4명을 함부로 죽인 죄목으로 이기를 가두었으나, 여러 사람들이 석방을 요청하여 풀어주었다.

이두황군은 12월 11일 구례를 출발하면서 임정연과 양주신을 남문 밖에서 처형하였는데,<sup>6)</sup> 『순교약력』에는 임정연으로부터 동학을 전수받은 양주신이 경군 대장에게 접주 혐의로 체포되어 12월 12일 참형을 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순교약력』은 동학농민군의 관점에서 남원지역에서 있었던 동학농민군의 실상을 어느 기록물보다 생생히 알려주고 있다. 이 기록물은 단지 유태홍의 기억에만 의존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른 참고자료가 분명히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만큼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순교약력』 91명은 사망자로 국한하였고 유태홍처럼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고도 1923년 3월 당시 생존자는 제외한 데다, 남원지역과 연원이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실제 동학농민혁명기 사망한 남원 출신 동학농민군은 『순교약력』에서 정리한 인원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다.

---

5) 『남원군동학사』.

6) 『양호우선봉일기』, 1894년 12월 11일자.

## 2. 『남원종리원사』의 생산과 내용

『남원종리원사(南原宗理院史)』의 표제목은 ‘포덕 65년 9월 일 남원군 종리원’으로 되어 있고 표지 포함 총 46명의 필사본이다. 편집목차는 본원(남원군 종리원)의 연혁, 부록으로 운봉군 교구사, 구례군 교구사, 남원군 동학사가 차례로 실려 있다.

「남원군 동학사」는 표제가 ‘포덕 65년 10월 남원군 동학사’로 되어 있다. 본문 내용은 10월 22일 동학농민혁명기 동학 지도자였던 원로 유태홍의 구술을 남원군 주임 종리사 최병현이 기술한 것이다. 이것으로 보아 『남원군 종리원사』와 「남원군 동학사」는 생산시기와 생산주체가 다른 만큼 별책으로 보아야 한다.

「남원군 동학사」는 1861년 수운 최제우가 남원에 온 사실부터 1904년 일진회사건까지 44년의 남원지역 동학 역사를 정리하고 있지만, 전체 분량의 60% 정도가 갑오년 남원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최병현은 과거의 기록 가운데 갑오년의 의미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남원군의 동학사를 한편으로 갑오사(甲午史)로 지칭할 정도였다. 그만큼 남원군 동학사 편찬에 가담한 유태홍과 최병현 등은 갑오년의 남원 동학농민혁명사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1923-1924년에 남원군 종리원에서 왜 동학농민혁명을 남원군 천도교의 중요 사건으로 보았고, 동학농민혁명에서 천도교의 정통성을 찾으려고 하였는지가 해명되어야 기록물의 성격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순교약력』은 물론 『남원종리원사』를 편찬한 핵심인물은 유태홍과 최병현이다. 현 남원시 이백면에서 태어난 유태홍은 1909년 이후부터 남원교구 직원 명단에 이름이 오른 내린 뒤 1918년부터 1921년까지 교구장을 지냈다.<sup>7)</sup> 이 때문에 유태홍은 남원 3.1운동을 주

---

7) 『남원종리원사』.

도적으로 이끌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이후 1928년에 신간회 남원 지회장, 1945년에 남원 건국준비위원장 등을 맡는 등 남원지역 현대사의 산증인이었다. 1950년에 사망하였다.

1888년에 남원시 주천면 주천리에서 출생한 최병현은 1916년부터 1919년까지 남원교구 이문원을 맡았다. 이 때문에 최병현은 교구장 유태홍과 함께 3.1운동을 이끌었다. 그뒤 최병현은 1921년 12월부터 다시 남원교구 보직을 맡았다. 1923년 5월 남원교구가 남원 종리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에는 종리원 서무과 종리사를 거쳐 1924년 8월 20일 부로 포덕과 주임 종리사가 되었다. 그는 주임 종리사에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9월에 남원군 종리원 연혁을 정리하고, 10월에는 남원군 동학사를 편찬하였다.

최병현이 1923년 『순교약력』 편찬에 연이어 『남원군 종리원사』를 편찬한 것은 남원군 종리원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바로세우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최병현은 1910년대 천도교 중앙 교계의 움직임과 맞물려 성장한 대표적인 남원 천도교 인사이다. 그는 1909년 2월에 성용락·홍규섭과 함께 천도교 중앙총부 사범학교에 입학하였고, 3.1운동 때는 유태홍과 함께 만세시위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1920년 1월에는 천도교청년회에서 주최하는 서울 연례강습회에 다른 5명의 청년과 함께 참석하였다. 1921년 7월에는 남원, 곡성, 광양, 순천, 순창, 담양, 장성 7교구의 의정회 의정원으로 선발될 정도로 점차 지도력을 발휘하였다.

그 무렵 중앙 천도교계는 혁신파와 보수파로 나뉘어 천도교청년회를 중심으로 혁신운동이 전개되었다. 1920년 4월 25일 천도교 청년교리강습부를 확대·개편한 천도교 청년회는 월간 잡지 「개벽」을 발간하고 소년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교리강습소를 열어 전국의 청년들에게 천도교 역사와 교리를 교육하고 인내천주의를 선전하는 등 천도교를 일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혁신운동을 주도한 인물은 최제우의 양손이자 최시형의 큰아들인 최동희, 이상우, 오지영 등으로, 그 과정에서 혁신파와 보수파로 나뉘어 대립하였다. 두 파의 대립은 1922년 5월 19일 손병희

의 사망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천도교 혁신파는 천도교의 뿌리를 동학에 두고 동학을 적통으로 한 천도교리를 연구하고 보급하였다. 혁신파는 남북접의 일원으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학의 적통이라는 자부심이 강한 원로와 중진, 그리고 다양한 지역 출신의 소장파로 구성되어 있었다.<sup>8)</sup> 이들은 1918년부터 천도교리를 연구하였다. 또 오지영 등 혁신파 지도자들은 1921년에 사상강구회를 조직하여 동학에 뿌리를 둔 동도주의에 입각한 혁신사상을 연구하였다.<sup>9)</sup>

그 과정에서 천도교사가 집필되기 시작하였다. 천도교청년회는 1920년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에서 220명의 청년 교인들을 소집하여 ‘천도교 청년 임시교리강습회’를 열었는데, 이때 교재로 사용할 경전과 교사를 모아 『천도교서』를 펴냈다. 「남원군 동학사」를 편찬한 최병현도 1921년 1월에 열린 강습회에 참석한 만큼 이 교재로 강습을 받았을 것이다.<sup>10)</sup> 그뒤 1921년에 교주 박인호 명의로 또다른 『천도교서』가 편찬되었고, 1924년경에는 오지영의 『동학사』 초고본이 쓰여졌다.

이러한 교사 집필 움직임은 각 지방 교구(종리원)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중앙의 움직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최병현은 주임 종리사로 취임하자마자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에 뿌리를 둔 남원군 종리원 연혁과 남원군 동학사를 지역 원로인 유태홍의 구술에 기초하여 정리한 것이다.

남원군 종리원의 연혁은 1861년 수운 최제우의 남원 방문을 시작으로 1923년 종리원으로서의 명의 변경까지 정리되어 있다. 특별한 점은 1892-1893년 동학 교조신원운동 참여와 1894년 갑오년 사건을 혁명운동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서술비중이 큰 점이다. 이는 그만큼 남원

---

8) 김정인, 2009, 『천도교 근대 민족운동 연구』, 한울아카데미, 193~195쪽.

9) 위 책, 181~185쪽.

10) 최충식, 2023, 『독립운동가 최병현』, 디에스피, 36~38쪽.

군 종리원 역사에서 동학농민혁명의 비중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한 교사(敎史) 인식과 내용은 「남원군 동학사」에 잘 나타나 있다. 「남원군 동학사」는 1861년부터 연원한 남원지역 동학의 역사를 정리한 뒤, 전체의 80%나 될 정도로 1892-1893년 동학운동과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남원군 동학사」 내용 가운데 1861년 남원에서 수운 최제우의 행적, 1892년 동학 삼례집회 때 남원 출신 유태흥이 전봉준과 함께 소장 장두가 된 점, 1893년 금원 원평집회 당시 동학도들의 움직임, 동학농민혁명기 장성전투에서 사용한 장태 형태, 11월 남원 방아치전투 전말, 11월 28일 남원성전투 이후 유태흥의 동정, 1894-1895년 남원 동학도인들의 참화, 동학농민혁명 이후 남원 동학도인들의 수난 등은 다른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료적 가치가 있다.

이러한 동학사 내용은 『천도교서』와는 차이가 있다. 1920년에 편찬한 『천도교서』는 제1편 수운 대신사, 제2편 해월 신사, 제3편 의암 성사편으로 나누어 3대 교주와 교단 중심으로 집필된 반면, 「남원군 동학사」는 남원을 중심에 놓되 호남과 전봉준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러한 동학 중심의 인식체계는 오지영이 집필한 『동학사』 초고본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천도교서』에 나타난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은 고부봉기 → 전주성 점령 → 전주화약 → 집강소 → 9월 재봉기로 이어진다. 이는 오지영의 『동학사』 초고본이나 「남원군 동학사」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9월 재봉기에 관한 부분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천도교서』는 전봉준을 비판적으로 서술하면서 최시형, 즉, 동학 교단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반면에 오지영의 『동학사』 초고본과 「남원군 동학사」는 전봉준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실제 남원지역 9월 재봉기 관련 내용은 『천도교서』의 경우 최시형의 지시로 남원지역에서 김흥기를 비롯한 13명의 대접주들이 봉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 오지

영의 『동학사』 초고본은 호남 집강소(전봉준) 주도로 재봉기하여 남원에 김개남이 지휘하는 1만군이 있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남원군 동학사」 역시 전봉준과 김개남이 주도적으로 재봉기하여 공주로 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으로 보아 「남원군 동학사」를 편찬한 남원군 종리원 주임 종리사 최병현은 천도교의 혁신파, 그 중에서도 같은 호남 출신인 오지영의 동학 인식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최병현은 남원군 종리원의 연혁과 동학사를 정리하는데 있어서 동학에 뿌리를 두고 동학농민혁명을 강조하여, 남원 천도교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 II. 세계기록유산으로 본 남원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

### 1. 남원지역 동학 전파

수운 최제우가 1861년 12월에 남원 은적암에 기거하면서 다음해 7월에 경주로 돌아갈 때까지 여러 저작을 통해 동학을 체계적으로 완성하였음은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다. 이는 「남원군 동학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포덕 2년[1861] 신유 6월에 대신사가 호남으로 향하시어 산수풍토와 인심풍속을 살펴보고 본군 남문 밖 광한루 아래 오작교 옆 서형칠 집에 와서 머물며 수일을 유숙하다가 그 집은 약방인 까닭에 변잡함으로 인하여 부근에 있는 서형칠의 조카 공창운 집에 유숙하시며 서형칠, 공창운, 양국삼, 서공서, 이경구, 양득삼 등에게 전도하실 때 ---

동년 가을에 대신사께서 은적암(은적암은 본군 서쪽 10리쯤 교통산성 덕밀암 내 대신사께서 거주하신 방호)에 돌아와서 연성으로 가을 겨울을 지내시고---.”

위와 같은 「남원군 동학사」 내용에서 주목되는 기록은 ‘은적암에 돌아와서’ 부분이다. ‘돌아왔다(歸하사)’는 표현은 다시 왔다는 말이다. 이와 관련하여 1920년에 천도교청년회에서 간행한 『천도교서(天道敎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1861년 6월 10일에 대신사가 홀연히 남쪽으로 가겠다는 뜻을 이미 결정하신지라. (중략) 마침내 호남(湖南)으로 향하셨다. 성주(星州)를 지나 시다가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 사당에 절하시고 남원(南原)에 이르러 10여일을 머무셨다. 당 지역의 산수풍토와 인심풍속을 관찰하시고 인하여 제자 최중희(崔仲羲)를 대동하시고 방방곡곡을 두루 편력하시고 은적암(隱寂庵)에 이르셨다.”

『천도교서』에서는 수운 최제우가 남원에 10여일 머물다 방방곡곡을 두루 편력한 뒤 은적암에 온 것으로 되어 있다. 『최선생문집 도원기서』도 수운이 11월에 경주를 떠나 남원에서 10여일 머문 뒤 최중희와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다 12월 그믐께 덕밀암에 온 것으로 되어 있다.

실제 수운이 1861년 가을에 남원을 떠나 다른 지역을 순회한 사실은 『천도교 전주 종리원 연혁』에서도 확인된다. 이 기록에 의하면, 수운이 1861년에 포덕차로 최중희와 함께 남원에서 전주에 와 포교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기록들은 「남원군 동학사」에 은적암에 돌아왔다는 기록과도 상통한다. 「남원군 동학사」에 따르면, 6월에 경주를 떠난 수운은 남원에 도착하여 약방을 하는 서형칠 집에 몇 일을 유숙한 뒤 다시 서형칠의 조카 공창윤 집에 머물며 서형칠, 공창윤, 양국삼, 서공서, 이경구, 양득삼 등에게 전도한 다음, 다른 지역을 순회한 뒤 가을에 덕밀암에 온 것으로 되어 있다.

반면에 표영삼은 『대선생주문집』과 『최선생문집 도원기서』 기록을 근거로 11월에 경주를 떠난 수운이 남원에 도착한 것은 12월 15일경이

고 덕밀암에 간 것은 12월 그림으로 보았다.<sup>11)</sup> 이와 같은 표영삼 주장은 「남원군 동학사」와는 차이가 있는 바, 앞으로 추가 자료 발굴을 통해 해명할 필요가 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남원에 도착하여 10여일 머물던 수운은 남원을 떠나 여러 지역을 순회한 뒤 다시 남원으로 돌아와 은적암에서 새해를 맞이하였다는 사실이다.

은적암에 머물며 도수사, 권학가, 논학문, 수덕문, 몽중노소문답기 등 여러 글을 집필한 수운은 1862년 7월 남원을 떠나 경주로 돌아갔다. 그 뒤에도 남원의 서형칠 등은 남원과 경주를 오가며 도맥을 통하다, 1864년 봄에 수운이 서거한 뒤에 자취를 감추었다. 그에 따라 점차 남원지역은 동학의 맥이 이어지지 않다가, 남원 둔덕면 탑동리(현 임실군 오수면 신기리)에 살던 김홍기가 1889년부터 앞장을 서서 유태홍·김영기 등과 함께 동학을 확산시켰다. 그 결과 동학은 순식간에 남원지역에 확산되어 1892년 삼례 동학집회, 1893년 1월 광화문 복합상소, 1893년 3월 금구 원평 및 보은집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었다.

특히 1892년 11월 삼례집회 때 남원 출신 유태홍이 전봉준과 함께 장두가 되어 소장을 전라감사에게 제출한 점, 1893년 1월 10일 전봉준이 작성한 창의문을 김영기가 남원에 게시하고 유태홍이 구례에 침부한 사실, 금구 원평집회의 전말 등은 다른 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들로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크다.

## 2. 남원지역 동학농민혁명 전개

「남원군 동학사」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 관련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에 의하면, 전봉준 등의 주도로 발발한 고부봉기가 동학농민혁명으로 발전하고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는 일련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다만, 전주성 점령 때까지 남원지역과 남원 동학도들의

---

11) 표영삼, 2004, 『동학 1-수운의 삶과 생각』, 통나무, 148~163쪽.

움직임은 기록된 내용이 없으며, 남원 관련 사실은 아래 글이 처음이다.

“서로 강화(相和)한 후 각처에 말을 거두고 포(砲)를 모으며[收馬收砲] 각 군에 창의사무소를 설립할 때 매소(每所)에 집강(執綱)의 직임을 두고 김개남이 본군에 와서 5영(전영, 후영, 좌영, 우영, 중영)을 설립하고 49일 진을 칠 때 매영에 일원장, 이원장, 군수군, 영군의 직임을 두고 또 성찰, 통찰 수십 인씩을 두었다. 그럼으로 각도 각군 교인 수십만명이 본군 내에 모여 4~5개월을 경과하고---.” 「남원군 동학사」

위 기록은 전주화약 이후 창의사무소, 즉, 집강소를 설치한 사실과 김개남이 남원에 5영을 설치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 이 부분은 남원 동학농민혁명사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 기록에 의하면, 김개남이 남원에 내려와 5영을 설치한 시점을 5월 8일 전주화약 이후로 볼 수 있다. 특히 각도 각군 교인 수십만명이 남원에 머문지 4,5개월을 경과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김개남의 남원 5영 설치의 갑오년 5,6월경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동학사』에서 밝힌 오지영의 집강소 인식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미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김개남은 5월 23일경 태인을 떠나 28일경 장성 백양사에서 묵은 뒤 순창 → 옥과 → 담양 → 창평 → 동복 → 낙안 → 순천 → 곡성을 거쳐 6월 25일 남원에 도착하였다.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부대도 7월 2일 남원에 들어왔다. 그러자 전라감사 김학진은 7월초 군사마 송인회를 남원으로 보내 전주에서 회담을 갖자는 제의를 하였다. 이 제의를 받아들인 것은 전봉준이었다. 김개남은 전봉준과 같이 남원을 출발하였으나, 중간에 생각을 바꾸어 다시 남원으로 되돌아왔다.

7월 6일 전주에 도착한 전봉준은 전라감영에 들어가 읍양정에 머물며 선화당에서 김학진과 회담을 가진 뒤 7월 8일 전주성을 나왔다. 이 전주회담에서 두 사람은 집강소를 전면적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하

였다. 전봉준은 7월 15일경 다시 남원으로 내려와 전주회담 결과를 알리는 동시에 각 군에 동학농민군 도소(집강소)를 설치하고 접주 가운데 집강을 뽑도록 하였다. 김개남은 이와 같은 전봉준의 집강소안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다. 그는 정예기병 100여 명만을 이끌고 남원을 떠나 임실 상여암으로 들어가 여름을 보냈다.<sup>12)</sup>

그렇지만 김개남 휘하의 농민군과 여타의 상당수 농민군은 남원과 그 일대에 잔류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진안접주 김사명(金士明),<sup>13)</sup> 흥양접주 유복만(劉福萬), 담양접주 남응삼 등은 남원 출신의 농민군과 함께 남원지역에 ‘도소’를 설치하고 운봉을 거쳐 영남방면으로 진출하고자 하였다. 이 때문에 7월 26일 이후 박봉양(朴鳳陽)이 조직한 운봉 민보군과 대치하게 되었다.<sup>14)</sup> 이때 남원부사는 성을 비우고 도주하였다.<sup>15)</sup> 사실상 남원지역은 농민군이 지방권력을 장악한 상태였다.

그뒤 이들 농민군은 8월 19일 남원성과 교룡산성의 무기고를 파괴해 무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8월 25일경에는 김개남의 주도하에 5-7만명이 운집한 농민군대회를 개최하였다.<sup>16)</sup> 이를 기반으로 김개남은 동헌에 대도소를 설치한 뒤 인근지역에 통치권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남원 대도소에는 김개남 직계의 24접(道康金氏 接主) 외에 전라 좌상도(左上道)에서 가장 강력한 남원의 화당산접(花山黨接, 접주李文卿)과 전라 좌하도(左下道)에서 최강인 보성접(접주 安奎馥),<sup>17)</sup> 그밖에 세력이 컸던 남원과 흥양접이 소속돼 있었다. 그래서 남원 대도소는 이같은 군

12) 전주화약 이후 전봉준과 김개남의 순행경로와 전주회담 과정은 김양식, 1996, 『근대 사회변동과 농민전쟁』, 신서원, 120~144쪽 참조.

13) 『天道敎書』, 310쪽.

14) 『朴鳳陽經歷書』 『동학란기록』 하, 511쪽.

15) 김재홍, 『영상일기』, 갑오 7월조, 15쪽.

16) 위의 책, 갑오 8월조, 17쪽; 『주한일본공사관기록』 2, 71쪽; 황현, 『오하기문』 2, 갑오 8월조, 91~92쪽.

17) 황현, 『오하기문』 2, 42~43쪽.

사력을 바탕으로 지배력을 인근지역에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다.

따라서 김개남이 남원에 대도소를 설치하고 오염을 둔 것은 8월 25일 이후이다. 이는 김개남 동학농민군부대가 남원을 떠난 것이 10월 14일이므로, 49일 유진설과도 일치한다. 5영 설치 역시 8월 25일 이후로, 대도소체제가 갖추어지는 9월 12일경이었다.<sup>18)</sup> 5영은 전영 대장에 남응삼, 후영 대장에 남원 출신의 김흥기, 우영 대장에 김대원, 좌영 대장에 김용관이 맡았고 김개남은 중영의 총대장을 맡았는데, 각 군영이 거느린 동학농민군 규모가 5,6천여 명이었다고 한다.<sup>19)</sup>

다음으로 「남원군 동학사」에 의하면, 전봉준은 윤봉 박봉양을 찾아가 그를 설득해 민보군을 해산시킨 사실과 김개남과 8일간에 걸쳐 논쟁을 벌인 사실이 기술되어 있다. 이 부분은 남원지역 동학농민혁명사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만큼 구체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전봉준이 박봉양을 설득한 사실은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문맥상으로 보면 전봉준이 8월 13일 나주에 가서 민종렬목사와 담판을 짓던 무렵으로 볼 수 있다. 「남원군 동학사」 기록에 나타난 전봉준 행적은 ‘남원 도착 → 각 군현 순시 → 나주목사와 담판하여 동학도인 석방 → 윤봉 박봉양을 제압하여 동학도인 6,7명 석방 → 남원 체류 순으로 기술되어 있다. 전봉준이 나주목사를 찾아간 것은 8월 13일이 분명한 만큼, 전봉준이 윤봉에 간 것은 8월 13일 이후 무렵일 것이다.

그런데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남원은 8월 19일부터 다시 동학농민군이 재집결, 김개남 주도로 8월 25일 동학농민군대회가 열렸다. 이때 전봉준과 손화중도 남원으로 와 세 사람이 투쟁방향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그렇다면 전봉준이 윤봉에 간 시기는 8월 15일 전후일 것이다.

전봉준이 윤봉에 간 시기는 7월 말경일 수도 있다. 전봉준은 전주성에서 철수한 이후 각 지역을 순행한 뒤 7월 2일 남원에 들어온 뒤, 7월

18) 표영삼, 1999, 「남원의 동학혁명운동 연구」, 『동학연구』 5, 동학학회, 45~46쪽.

19) 『영상일기』, 갑오년 8월 26일.

6일 전주성으로 가 전라감사 김학진과의 회담을 통해 집강소체제를 도출하였다. 전봉준은 7월 15일 다시 남원으로 내려와 전주회담의 결과를 알리고 집강소 설치·운영을 독려한 뒤, 순천과 운봉을 거쳐 전주로 돌아왔다. 전봉준이 운봉에 간 것은 박봉양이 민보군을 조직해 동학농민군에 저항할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sup>20)</sup> 따라서 전봉준이 운봉에 간 시기는 7월 20일 전후로도 볼 수 있으나, 7월 26일 이후 박봉양이 조직한 민보군이 남원지역 동학농민군과 대치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설득력이 부족하다.<sup>21)</sup> 따라서 전봉준이 운봉에 가서 박봉양을 설득해 민보군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킨 것은 8월 13일 전후로 추정된다.

한편 전봉준이 운봉에 간 시기가 8월 25일 이후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운봉 박봉양의 움직임이다. 박봉양은 7월 26일 민보군을 조직해 활동하다 소강 상태를 유지하다 8월 22일 이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신임 운봉군수의 부임이다.

8월 22일 부임한 운봉군수 이의경은 박봉양과 협력하여 수성군을 강화하였다. 남원에 동학농민군이 집결하는 것에 대한 대응책이다. 운봉군수는 남원 동학농민군의 세력이 강성해지자 인근 지역에 위급함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여, 실제 함양군에서 포군 150명을 파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남원에 온 전봉준이 운봉으로 가서 박봉양을 설득하였을 개연성은 없다.

따라서 전봉준이 운봉에 간 시점은 전봉준이 나주에 간 8월 13일 이후, 운봉군수가 부임하는 8월 22일 이전인 8월 15일 전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19일부터 남원지역 동학농민군이 재집결하자, 전봉준은 매우 당혹하였을 것이다. 그 때문에 「남원군 동학사」에는 전봉준이 동학농민군대회를 주도한 김개남과 투쟁노선을 둘러싼 논쟁을 8일에 걸쳐 벌인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

20) 김양식, 앞의 책, 148~149쪽.

21) 위의 책, 186쪽.

그러나 전봉준이 남원에 머물며 김개남과 논쟁을 벌인 것은 사실이  
지만, 8일짜이나 논쟁을 벌였는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전봉준은 9  
월초 신병 치료차 태인 산외면 동곡리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확인되  
는 만큼,<sup>22)</sup> 8월 중하순에 나주·운봉·남원 등지에 머물며 관민상화를  
원칙으로 한 집강소체제를 유지하는데 힘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남원군 동학사」는 남원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중요한 정  
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사실은 착종되거나 내용상의 오류가 일부  
있어 사료 내적 비판이 요구된다. 김개남부대가 남원을 떠나 행군한 곳  
도 청주가 아닌, 공주로 되어 있다.

김개남부대가 남원을 떠난 이후 동학농민군과 박봉양이 이끄는 운봉  
민보군과의 전투과정도 「남원군 동학사」를 구술한 유태홍이 직접 참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소략하게 기술되어 있다. 오히려 『박봉양  
경력서』가 9월 17일 방아치전투, 11월 14일 방아치전투, 11월 28일  
남원성전투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다만, 「남원군 동학사」  
는 『박봉양경력서』와는 달리, 11월 방아치전투에 참전한 동학농민군부  
대가 홍양 유복만, 담양 남응삼, 태인 정창규·김연구, 진안 이사명, 금  
구 김봉덕, 임실 최준필접주 외에 남원 토착 동학농민군 출신인 김흥기,  
황내문, 이규순, 이기동, 박세춘, 유태홍, 변홍두, 최진악, 김연호, 심노  
환, 조동섭, 김우측 등 12명의 접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사료  
적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sup>23)</sup>

남원 방아치전투에 참여한 남원 토착 접주 12명 가운데 김흥기, 황내  
문, 이규순, 변홍두, 최진악, 김연호, 심노환은 『순교약력』에 나오며 약  
력은 <표 2>와 같다. 이들은 실제 전투과정에서 전사하지 않았으나, 7명  
모두 12월 9일 이후 민보군에게 체포되어 남원장터나 오수장터 등지에

22) 『전봉준공초』.

23) 『남원군종리원사』 연혁에는 방아치전투에 참전한 남원 토착 동학농민군 접주로 김  
연호가, 「남원군 동학사」에는 김우측이 누락되어 있다.

서 처형되었다.

반면에 이기동은 1889년에 김영기·유태홍 등과 함께 남원 동학 포덕의 기틀을 다진 인물로서, 동학농민혁명기에 살아 남아 1902년 춘암 박인호가 남원에 왔을 때 환영식에 참석하기도 하였다.<sup>24)</sup>

박세춘 역시 1889년에 동학 포덕에 앞장을 선 인물이다. 『순교약력』에 이름이 없는 것으로 보아 동학농민혁명기에 살아 남았으나, 동학·천도교 활동을 지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태홍은 위 이기동·박세춘 등과 함께 남원의 동학 기틀을 다진 인물이다. 1892년 삼례집회 때 전봉준과 함께 전라감사에게 소장을 올리고 1893년 1월에는 전봉준이 작성한 창의문을 구례에 배포하는 등 1892-1893년 동학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1894년 11월 방아치전투에 참전한 뒤에는 남원성을 지키다 패하자 남은 병사 5백여 명을 이끌고 순천으로 이동한 뒤 해산하였다. 다행히 살아 남은 유태홍은 1895년 가을에 장남선 등과 함께 동학 포덕을 이어가다, 1906년 6월 19일에 천도교 남원교구 창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조동섭은 위 동학 접주들과 함께 1889년 무렵에 남원 동학의 기틀을 잡는데 일조를 하였다. 그는 『순교약력』에 이름이 없는 것으로 보아 동학농민혁명기에 살아 남았지만, 그 이후 동학·천도교 활동을 이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우측도 동일하였다.

이와 같이 남원 토착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방아치전투에 참전한 남원 동학접주 12명 가운데 동학농민혁명기에 사망한 인물이 7명이고 살아 남아 동학·천도교 활동을 이어간 인물이 이기동·유태홍 2명 뿐이다. 나머지 3명은 동학농민혁명 이후 행적을 알 수 없다.

한편 「남원군 동학사」에는 박봉양이 전봉준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풀려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박봉양은 12월 11일에 나주 감옥에 구

---

24) 『남원군종리원사』, 연혁. 이하 동일.

금된 뒤 선달 그믐날 서울로 압송되어 1895년 3월 ‘군병의 약탈을 금하지 못한 죄목’으로 재판을 받고 장형 60대 처벌을 받았다.<sup>25)</sup> 이와 같이 「남원군 동학사」는 역사적 사실이 일부 착종되어 있거나 부분적으로 기억의 오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군 동학사」는 동학농민군 입장에서 기록되어 있어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높다.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던 남원 인물과 그들의 행적 기록은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이다. 「남원군 동학사」는 남원 동학농민군들의 최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사방으로 흩어져 머물러 살 곳이 없게 되었다. 도인 김흥기, 이규순, 황내문, 이사명, 변흥두, 최진악, 심노환, 김연호 외 수백인이 갑오 12월부터 올미 봄 여름까지 남원장터와 오수장터 및 각 방면 도회지에서 총칼의 원혼이 되고 그 외 생존 도인도 가산탕진하고 망명도주로 유리결식하여 거처없이 떠도는 자가 수백인이었다.”

이와 같은 기록은 동학농민혁명 이후 처참하였던 남원지역 동학농민군들의 삶과 최후를 말해주고 있다. 이런 실상은 『순교 약력』 기록과도 일치한다.

## 맺음말

이상과 같이 2023년에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185건 가운데 남원지역과 관련된 『순교약력』과 『남원종리원사』가 생산된 배경과 그 내용을 살펴본 뒤, 두 기록물 내용을 중심으로 남원지

---

25) 『동학관련판결선고서』, 제29호 판결선고서 원본 박봉양.

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순교약력』은 1923년 3월 1일 작성된 ‘남원군교구 순교인 성명’ 명단 42명과 ‘근성교무 중 환원인 성명’ 명단 49명을 게재한 뒤 총 91명에 대한 성명 및 약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아, 남원지역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던 인물들을 알 수 있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기록물이다.

특히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갑오년에 사망한 이들에 관한 기록이다. 동학농민혁명기에 사망한 42명 가운데 둔덕면과 산동면 출신이 각각 7명과 11명으로, 이 두 지역이 남원지역의 동학 확산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의 중심지였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연령층은 30-40대가 가장 많으며, 사망 시기는 거의 모두 정부군과 일본군이 남원을 떠난 12월 5일 이후에 체포되어 남원장터, 오수장터, 운봉장터 등지에서 처형되었다. 더욱이 1895년 2월에도 처형된 인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남원 민보군의 활동은 겨울 내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남원지역 동학농민군들 역시 실제 전투과정에서 죽은 경우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해산한 이후 민보군이나 관군에게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이는 2차 동학농민혁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문제의식이 요구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순교약력』은 동학농민군의 관점에서 남원지역에서 있었던 동학농민군의 실상을 어느 기록물보다 생생히 알려주고 있다. 이 기록물은 단지 유태홍의 기억에만 의존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른 참고자료가 분명히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만큼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순교약력』 91명은 사망자로 국한하였고 유태홍처럼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고도 1923년 3월 당시 생존자는 제외한 데다, 남원지역과 연원이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실제 동학농민혁명기 사망한 남원 출신 동학농민군은 『순교약력』에서 정리한 인원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다.

『남원종리원사』 부록으로 있는 「남원군 동학사」는 동학농민혁명이 동학 지도자였던 원로 유태홍의 구술을 남원군 주임 종리사 최병현이 1924년 10월 22일에 기술한 것이다. 내용은 1861년에 수운 최제우가 남원에 온 사실부터 1904년 일진회사건까지 44년의 남원지역 동학 역사를 정리하고 있지만, 전체 분량의 60% 정도가 갑오년 남원지역 동학 농민혁명의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남원 동학사를 동학농민혁명 중심으로 서술한 것은 「남원군 동학사」를 편찬한 남원군 종리원 주임 종리사 최병현이 천도교의 혁신파, 그 중에서도 같은 호남 출신인 오지영의 동학 인식과 궤를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병현은 동학농민혁명을 중심으로 남원 천도교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정립하고자 한 것이다.

그를 위해 「남원군 동학사」는 1861년에 수운 최제우가 남원에 두 차례 방문한 점, 1889년부터 동학이 순식간에 남원지역에 확산되어 1892년 삼례 동학집회, 1893년 1월 광화문 복합상소, 1893년 3월 금구 원평 및 보은집회에 적극 참여한 사실 등을 언급하였다. 특히 1892년 11월 삼례집회 때 남원 출신 유태홍이 전봉준과 함께 장두가 되어 소장을 전라감사에게 제출한 점, 1893년 1월 10일 전봉준이 작성한 창의문을 김영기가 남원에 게시하고 유태홍이 구례에 첨부한 사실, 금구 원평집회의 전말 등은 다른 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들로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크다.

「남원군 동학사」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남원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전개된 것은 전주화약 이후부터로, 집강소와 김개남의 5영 설치를 강조해서 언급하였다. 다만, 김개남 5영 설치는 남원 동학농민군대회가 열린 8월 25일 이후임에도 그에 관해서는 자세히 기술하지 않았다.

또 「남원군 동학사」에는 전봉준이 운봉 박봉양을 찾아가 그를 설득해 민보군을 해산시킨 사실과 김개남과 8일간에 걸쳐 논쟁을 벌인 사실이 기술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일시는 모호하다. 실제 전봉준이 박봉양을 찾아간 것은 전봉준의 전체적인 동선을 놓고 보았을 때 8월 13일

전후이며, 김개남과 8일간 논쟁을 한 시기도 남원 동학농민군대회가 열린 8월 25일경이다. 다만, 「남원군 동학사」처럼 8일에 걸쳐 논쟁하였지는 의심스럽다.

이와 같이 「남원군 동학사」는 남원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사실은 착종되거나 내용상의 오류가 일부 있어 사료 내적 비판이 요구된다. 김개남부대가 남원을 떠나 행군한 곳도 청주가 아닌, 공주로 되어 있다.

김개남부대가 남원을 떠나 청주로 향한 이후 동학농민군과 박봉양이 이끄는 윤봉 민보군과의 전투과정도 「남원군 동학사」를 구술한 유태홍이 직접 참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소략하게 기술되어 있다. 다만, 「남원군 동학사」는 11월 방아치전투에 참전한 남원 토착 동학농민군들이 누구였는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사료적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남원군 동학사」는 역사적 사실이 일부 착종되어 있거나 부분적으로 기억의 오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군 동학사」는 동학농민군 입장에서 기록되어 있어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남원 출신 동학농민군들이 어떻게 죽어갔고, 설령 생존하였어도 얼마나 힘든 삶을 이어갔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                                                                  |
|------------------------------------------------------------------|
| 투고일 : 2025. 4. 3.    심사완료일 : 2025. 4. 27.    게재확정일 : 2025. 5. 7. |
|------------------------------------------------------------------|

## 참고문헌

### 〈자료〉

『南原綜理院史』.

『巡教略歷』.

### 〈단행본〉

김양식, 1996, 『근대 사회변동과 농민전쟁』, 신서원.

김정인, 2009, 『천도교 근대 민족운동 연구』, 한울아카데미.

최충식, 2023, 『독립운동가 최병현』, 디에스피.

표영삼, 2004, 『동학 1 - 수운의 삶과 생각』, 통나무.

### 〈연구논문〉

박찬승, 1995, 「1894년 농민전쟁기 호남지방 농민군의 동향」,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 새길.

이병규, 2014, 「남원지역 토착 동학농민군의 활동-김홍기와 유태홍을 중심으로」, 『동학 학보』 33, 동학학회, 39~56쪽.

표영삼, 1999, 「남원의 동학혁명운동 연구」, 『동학연구』 5, 한국동학학회, 21~83쪽.

## 〈Abstract〉

# World Documentary Heritage and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Namwon

- Focusing on the Martyrdom Records and Namwon  
Jongriwonsa Temple -

Kim, Yang-Sik\*

This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 and content of the records "Sunkyoyakryeok(순교약력)" and "Namwon Jongriwonsa(남원 종리원사)", which are related to the Namwon region among the 185 record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designated as UNESCO Memory of the World in 2023. Based on these records, this study explores the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the Namwon region.

"Sunkyoyakryeok" is a document that systematically organizes the names and brief biographies of 91 Donghak members from Namwon. Particularly noteworthy in relation to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re the records of those who died in 1894. Among the 42 individuals who perished during the revolution, 7 were from Dunduk-myeon and 11 from Sandong-myeon, indicating that these two areas were the central hubs for the spread of Donghak and participation i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Namwon. The majority of participants were in their 30s and 40s, and most of them were captured and executed after December 5, when the government and Japanese forces had

---

\* Director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Research Institute

already left Namwon. This suggests the need for a new perspective in understanding the second phase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Namwon Jongriwonsa", along with its appendix "Namwon-gun Donghaksa", is a document recorded by Namwon-gun's chief Jongrisa Choi Byung-hyun on October 22, 1924, based on the oral testimony of veteran Donghak leader Yoo Tae-hong. It covers 44 years of Donghak history in Namwon, from the visit of Choe Je-u, the founder of Donghak, in 1861 to the Iljinhoe Incident in 1904. However, approximately 60% of the document focuses on historical event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Namwon during the Gabo year (1894). This emphasis reflects an effort to establish the identity and legitimacy of Cheondoism in Namwon through the len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o achieve this, "Namwon-gun Donghaksa" mentions key historical events, such as Choe Je-u's two visits to Namwon in 1861, the Samnye Donghak assembly in 1892, the Gwanghwamun joint petition in January 1893, and the Geumgu Wonpyeong and Boeun assemblies in March 1893. Additionally, it provides new insights into the establishment of five military divisions by Kim Gaenam in Namwon following the Jeonju Truce, the Battle of Bangachi on November 14, and the retreat from Namwon Fortress on November 28.

However, while "Namwon-gun Donghaksa" provides valuable information about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Namwon, some descriptions are brief, mixed with inaccuracies, or contain errors, necessitating a critical historical review. Nevertheless, as a record writte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onghak Peasant Army, it holds significant historical value. In particular, it vividly illustrates how the Donghak Peasant Army members from Namwon perished and, for those who survived, the hardships they endured in their later lives.

**Key word :** Namwon Donghak Peasant Revolution, Sunkyoakryeok, Namwon Jongriwonsa, Battle of Bangachi, Yoo Tae-hong

